

전남

이상 증식 해파리 떼 바다 점령

전남 서해안 어장 마비상태... 영광원전 직접 피해

전남 서해안에 해파리가 대량 출현하면서 원자력발전소와 어장 등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립 수산과학원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 해남군 송지면 근해에서 지름 8cm 크기의 보름달물해파리, 6월 12일 영광군 안마도 근해에서 지름 10cm의 커튼원양해파리와 보름달물해파리, 6월 19일 안마도 근해에서 지름 8cm의 보름달물해파리가 대량 출현했다.

이달 들어 지난 3일 목포와 완도 근해에서 지름 10cm의 보름달물해파리가 출현하는 등 해수온도가 높아지기 시작한 지난 5월부터 전남 서해안에서 해파리가 대량으로 몰려들고 있

다.(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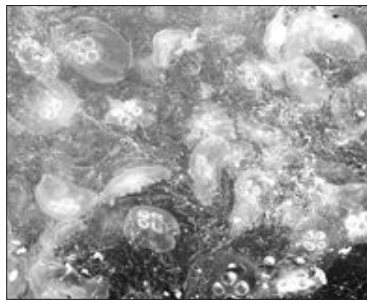
해파리가 출몰하면서 원전의 냉각수 공급과 어장에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일부터 현재까지 영광군 흥농읍 영광원전의 냉각수 공급을 취소함에 해파리가 밀려오면서 냉각용 바닷물이 유입되는 지금 1cm 규모의 취소구 구멍을 막아 발전시설 정지, 발전량 감소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발전소 취소구별로 매일 여러 차례 해파리를 잡아 발효장으로 옮겨 퇴비로 처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총 113t에 이르는 해파리가 밀려온 것으로 추산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흥농읍 계마항, 안마도 등 영광 앞바다에도 해파리가 대량 출현, 그물이 찢어지거나 어구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커지면서 어민들이 어장을 포기하고 철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계마항 어민 김도(51)씨는 "벼어나 중하 등이 많이 잡히는 철이지만 그물에는 해파리만 가득 들어올릴 수도 없고 파도가 치면 그물이 찢어져 어민 대부분이 어장을 포기했다"며 "6월에 출몰해 15일 정도 지나면 사라지던 해파리가 최근에는 갈수록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해파리는 과거에는 주로 제주도



남해안 일대에 분포해 있었으나 수온이 상승하면서 4~5년 전부터 서해안 근근해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개체수도 크게 늘고 있는 상태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수산자원 황폐화와 수온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피해를 줄이려면 개체수, 해역별 분포 등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

물과 숲 그리고 문화와 함께 休~

29일부터 '정남진 물축제'

장흥군이 오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탐진강과 장흥캠 생태공원 일원에서 '제2회 대한민국 정남진 물 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정남진 물 축제의 주제는 '물과 숲·休, 슬로건은 '군민은 친절! 향우는 협력! 세상은 참여!'로 다양하고 새롭고 신선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군은 지난해와 달리 주한 외교사절단과 서북미 호남향우회, 상공인 등을 대거 초청, 지역축제를 넘어 축제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메인 프로그램으로 통일 및 국민화합기원 물 합수식, 희망소원배 띄우기, 수상 스크린 심야영화 상영, 아쿠아 야외공연 예술제 등



이 준비된다. 또 문화 프로그램은 무형문화재 조각품 설치미술, 지역민에 단체공연, 청소년 축제, 병아리축제 등이 신명을 뽐낸다.

이밖에 체험 및 놀이프로그램으로 팻말타기 체험, 우든보트 타기, 줄매타기, 맨손으로 물고기잡기, 도자기 만들기, 소달구지 타기 등

이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환영한다. 생애·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물길따라 100리 탐진강 생태 도보탐사, 물과학체험 등을, 전시행사로 는 한방 생약초관, 2010 보원의학 통합박람회관, 슬로시티관, 장흥 전통주관 등이 준비된다.

/정흥=김용기기자 kykim@

장성 건축경기 활기

상반기 건축허가 60% ↑

장성군의 건축경기가 활기를 띠면서 지역경제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2일 군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 건축허가 건수가 전년대비 60% 증가한 390여건으로, 연말까지 800여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대내 타군 건축허가 건수 중 최상위에 속하는 실적으로, 장성군은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건축허가 면적이 경제의 미래를 예측하는 선행지수로서 평가받고 있어 이번 건축허가 건수 증가가 실물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장성군의 경우 민선 4기 들어 대규모 국책사업을 유치하면서 도로·상수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기반이 구축돼 민간 건설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국가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이 진행중에 있어 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윈스톱으로 처리되는 행정서비스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장성군은 지난해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건축허가, 공장창업, 개발행위, 환경허가 등을 민원봉사과에 집중 배치했다. 이를 통해 허가기간을 대폭 단축해 민원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



제주도서 강진청차 흥보

강진MTB동호회(회장 이병현)는 최근 제주도 일원을 자전거로 돌며 8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제 37회 강진 청차축제'를 흥보했다.

올해 강진 청차축제는 오는 8월 8일부터 16일까지 강진 대구면 고려청자도요지 일원에서 '흥·불 그리고 인간'을 주제로 열린다.

(강진군 제공)

서해 해경청 관계자는 "일반 국민이 아직까지 '해양 긴급신고 122'에 대해 잘 몰라 바다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119나 112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구조활동이 어렵다"면서 "바다에서 사고를 당하면 122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해양경찰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해양 긴급번호 122'를 운영하고 있다.

/목포=대성수기자 dss@

해양사고 '112' 누르세요

"바다의 생명번호.122를 아시나요?" 해양 긴급번호 122는 바다에서 긴급재난을 당했을 때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2로 신고하면 해양경찰의 신속한 구조활동을 받을 수 있는 생명번호와 다름없다.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청장 김상철)은 지난 10일 목포지역 초등학교 2학년 명에게 '바다에서의 생명번호 122' 홍보물을 풍선으로 제작, 배포하는 등 '해양 긴급번호 122'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목포=대성수기자 dss@

광산구, 집중호우 피해복구 구슬땀

긴급복구반 가동... 주민센터서 피해접수도

광산구가 지난 7일 쏟아진 집중호우로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해 긴급복구실무반을 가동하고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구는 ▲도로·하수도 ▲주택수 ▲농경지 ▲공단피해 ▲산림피해 ▲쓰레기 처리 ▲자연봉사 ▲보건방역 ▲총괄 등 9개 지원반을 편성해 피해구급과 시설에 실질적 지원이 연계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접수된 피해 231건에 대

해 지원반과 장비가 파견돼 복구 작업에 여념이 없다. 복구에는 제1전투비행단 장비도 참가해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일 현재 침수된 비닐하우스 335동에 양수기를 동원해 배수를 완료했고, 쓰러진 복분로 가로수를 정비하고, 배수펌프 가동을 저해하는 쓰레기물과 시설에 실질적 지원이 연계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접수된 피해 231건에 대

민 143명에게 구호품이 전달됐다.

이와 함께 유실된 제방과 법면에 대한 복구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인력과 장비를 보강할 계획이다. 구는 아직 피해신고 접수하지 않은 주민을 위해 오는 16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피해신고 접수를 받는다.

구 관계자는 "복구작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집중호우가 증가해 예상되는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기원대기자 wtkee@

미래 꿈나무들의 신나는 과학체험

'2009 한평과학고실' 초등생 31명 참여

한평교육청(교육장 김광호)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학생들의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 '2009 한평과학고실' 개강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과학고실은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은 초등학생들에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탐구중심 프로그램으로, 지난 4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60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이를 통해 과학 꿈나무들에게 이공계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고, 기초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초등학교 2명의 지도아래 교실 안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과학탐구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습과 공작, 현장체험학습으로 교육활동을 꾸며 초등학생들의 흥미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에 운영되는 과학고실은 한평초, 기산초, 대동 향교초 등에서 과학에 흥미와 관심이 많고 과학적 소질을 가진 5~6학년 학생 중 학교의 추천을 받은 초등학생 31명이 참가하고 있다.

/함평=황은희기자 yung@

Table with multiple columns listing land auction details for various districts in Jeonnam, including location, area, and price. Includes a large advertisement for 'Km (주)국민법률경매' with contact information.